

성수품서 기름값까지 안 오르게 없다...설 물가 초비상

통계청 조사 33개 품목 살펴보니...지난 설 대비 배 94%·배추 84% ↑ 휘발유값 1700원선 넘어서고 외식비 급등...정부 물가 안정 총력전

설 명절을 앞두고 대표 품목인 배(신고·3개)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무려 94.5%나 올랐다. 닭고기(1.5kg)는 전년도 설보다 21.1%나 뛰었고 전 부침에 필수인 달걀(10개)값은 9.8%, 육전용 돼지고기(600g)는 6.3%나 올랐다.

통계청이 14일부터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에 나선 가운데 설 명절 33개 대표 품목 가격 변동세를 확인한 결과, 전년도 설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 성수품으로 꼽히는 대표 품목인 배(신고·3개)와 사과(부사·3개)는 지난 8일 기준 전년 대비 94.5%, 7.4% 올랐다.

한우가격은 보험세지만 닭고기(1.5kg)는 9890원에서 1만1980원으로 1년새 21.1%나 뛰었다. 같은 기간 달걀(10개)이 3990원에서 4380원으로 9.8%, 육전용 돼지고기(600g)는 6.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김치와 국 등에 자주 들어가는 배추와 무는 각각 84.4%, 74.8% 올랐다.

수산물 중 북어포(20.0%)와 동태(24.4%) 등은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기름값도 크게 뛰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는 14일 기준 ℓ 당 1703.4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또다시 ℓ 당 1700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및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와 전남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 13일 기준 각각 1685.93원, 1697.33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및 수도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국제유가와 고회환을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조만간 1700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식비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외식 소비자물가 지수는 평균 5.6% 올랐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지난 2022년에는 7.7%, 2023년은 6.0%, 2024년 3.1%나 상승했다.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 소득 증가폭을 외식비 상승폭이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른김(중품·10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1562원으로 전년 동기(1050원) 대비 48.8% 올랐다. 마른김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 대표 메뉴 중 하나인 김밥 판매가 역시 1년새 5.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통계청이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통계청은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전국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뒤 결과를 관련 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품목은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21개로 가장 많고 밀가루, 두부, 식용유 등 가공식품 5개, 삼겹살, 치킨 등 외식 분야 4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3개 등 33개다.

이행일 통계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들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 및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활용도 높은 통계들을 필요할 때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이 한장당 150원을 넘는 등 수산물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마른김 묶음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광주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10분기 연속 기준치 밀돌아

1분기, 전분기와 같은 '85'

지역 유통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10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상가 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지수(RBSI)'는 전분기와 동일한 85를 기록했다. 지역 소매유통업 RBSI는 2022년 4분기부터 10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다.

RBSI는 유통업체의 현재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어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광주상가의 겨울방학과 설명절 특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에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경제 불안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채널 간 경쟁 심화로 기준치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기업들의 올 1분기 예상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 증가(63.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수익성 악화(10.6%)',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8.5%)', '시장경쟁 심화(8.5%)', '유통 규제(4.3%)', '미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4.3%)' 등 순으로 우려가 많았다.

무엇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RBSI는 기준치(100) 수준이었지만, 영세 유통업체인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RBSI는 각각 76, 73으로 기준치를 하회함은 물론, 전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소량구매 수요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침체 장기화와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낮은 전망지수를 기록했다.

슈퍼마켓도 절약 소비 확산, 업체 성장 둔화 등으로 RBSI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 72.3%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이 올해 국내 소비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비용 부담 증가(53.2%)', '트럼프 정부 정책 불확실성(23.4%)',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19.1%)', '시장 경쟁 심화(17.0%)', '중국 전자상거래의 국내시장 영향력 확대(8.5%)' 등도 시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수부진 및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 불확실성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며 "음츠러든 소비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매월이자Wa예금' 상품 출시

광주은행이 14일 비대면 전용 상품인 '매월이자 Wa예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최근 고객 수요가 많았던 '파킹통장'의 장점을 반영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금리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연 2.50% 고정금리를 제공해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만기까지 자금을 유지한 뒤 해지하는 경우, 기간별로 ▲3개월 연 0.55%p ▲6개월 연 0.50%p ▲12개월 연 0.40%p의 만기축하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상품 가입금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비대면으로 광주 Wa뱅크앱과 모바일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금융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실속형 상품인 매월이자 Wa예금 상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삼성전자 '갤럭시 링' 대형 사이즈 2종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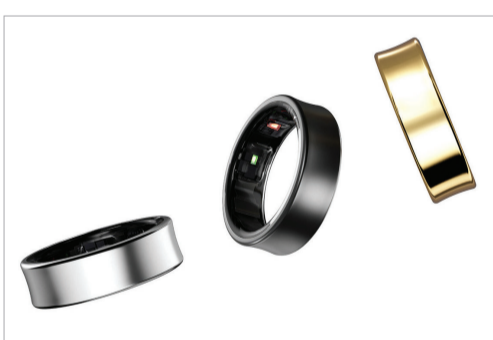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오는 24일부터 '갤럭시 링<사진>' 대형 사이즈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기존 최대 사이즈였던 13호보다 더 큰 14·15호를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갤럭시 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 5호부터 15호까지 총 11개의 사이즈로 판매되며 가격은 49만9400원이다.

사용자의 24시간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갤럭시 링은 측정된 건강 정보와 건강 팀을 '삼성 헬스'에 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삼성 헬스 앱 기능 업데이트도 마쳤다. 업데이트를 통해 질 좋은 수면을 돕는 기분 추적, 호흡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 추천 등이 포함된 '마음 챙김' 기능이 추가됐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내 삼성 헬스 앱과 스마트싱스 앱을 연계해 구현하는 '수면 환경 보고서' 기능



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박현수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간편하게 수면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올해 공공기관 신입 사원 평균 연봉 3961만원

올해 공공기관 신입 평균 연봉은 39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높은 신입 연봉이 책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조사됐다.

14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백과'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61만원으로 지난해(3964만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봉 정보를 공개한 기관 중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은행(5466만원)이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5220만원), 한국연구재단(성과급 포함 5135만원)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4000만원대(43.9%)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으며 5000만원대와 2000만원대는 각각 3.6%였다. /연합뉴스

위니아 소형 김치냉장고 원 도어 '딤채 뽀띠' 출시

㈜위니아가 14일 소형 김치냉장고 '딤채 뽀띠<사진>'를 출시했다.

딤채 뽀띠는 소형 김치냉장고로 감각적인 디자인에 김치냉장고 본연의 기능과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 도어' 디자인의 신제품은 유럽풍의 레트로 스타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세련미를 강조했다. 이는 위니아의 설명이다. 제품은 '레드', '크림', '화이트'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제품 용량은 단일 모델(100ℓ), 판매가는 70만원대다.

제품은 '오리저널 룰렛' 독립냉각 정온 기술과 함께 '스마트 쿨링' 기능을 탑재해 내부 온도 편차가 커질 경우, 냉기를 빠르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조건에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또 김치를 단기간에 숙성시킬 수 있는 '하루반 숙성 기능'도 적용했으며, 속성 진행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딤채 발효미터'도 탑재했다.

또 음료나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도어포켓'을 설치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제품은 '위니아딤채스테이'와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며 추후 롯데하이마트, 할인점에서 순차 구매할 수 있다.

위니아 백주현 영업본부장은 "김치냉장고 브랜드 인지도 1위 딤채가,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딤채 뽀띠를 새롭게 출시하게 됐다"며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보관 기능까지 갖춘 딤채 뽀띠가 특별한 가치를 중요시 하는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최장 3년 2억여원 지원

다음달 17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전남도가 2월 17일까지 지역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전남도와 특허청 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에서 전담 기관으로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전남지역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7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3년간 최대 2억1000만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의 핵심 요소인 특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으로부터 사무자동화(OA), 등록 비용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지원 ▲특허기술 활용전략(특허맵)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 융합개발 ▲디자인활용전략(디자인맵) ▲브랜드(신규·리뉴얼·비영어권) 개발 ▲디자인(제품·포장·목업) 개발 ▲지식재산 경영진단 컨설팅 등이다.

다. 수출 국가별로 자사 브랜드의 해외상표권 확보를 완료해 대만, 영국,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등에서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 광복화한 성과를 냈다.

심상완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역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긴급 지원, 지식재산 내래, 지식재산 디딤돌,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등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노란우산 설 맞이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진행

중기중앙회 다음달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설 맞이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오는 2월14일까지 진행한다.

소상공인이거나 소기업 대표는 이 기간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납입한 기금을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같은 제도다. 현재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약 177만명이다.

월 부담액은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공제금과 연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7.40 (+7.84)
↑ 코스닥	718.04 (+9.83)
↓ 금리(국고채 3년)	2.646 (-0.018)
↓ 환율(USD)	1460.05 (-10.75) (오후 5시 55분 기준)